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車·반도체 수출늘어 다행”

“2월부터 수출 증가로 전환될 것
신남방·북방 수출 확대... 좋은 흐름”
설 연휴 앞두고 종합 대비책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자년 첫 수석보좌관회의 때 “새해 들어 우리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며 “눈에 띄는 것은 수출 호조다. 연초부터 1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됐다. 오는 2월부터는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도 증가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나아질 징후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 주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주력 제조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게 큰 힘”이라며 “우리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세계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연간 수출 실적도 증가로 반등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연구기관의 대체로 공통된 예측”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은 작년 수출 물량이 조금 줄어든 가운데서도 SUV, 친환경차 등 고가 차량의 수출 호조로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2~3년간 생산과 고용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통관 기준으로 집계되는 수출액도 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수출 품목이 신산업과 5G 연관 산업, 2차 전지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다변화되고,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수출 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우리 경제의 좋은 흐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대비책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명절이면 먼저 생각나는 게 어려운 이웃”이라며 “정부는 민생 안전과 서민 지원 등 이미 발표된 설 연휴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통과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편안한 귀성길이 되도록 특별 교통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고, 연휴 기간의 료서비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이렇게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는 이낙연 전 총리와 했던 주례회동 관례의 연장선상이다. 배석자가 극소수로 제한되는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게 골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례회동 때 정 총리에게 ‘책임총리’로서 내각 운영에 책임을 주는 동시에 결맞는 역할을 당부했을 것으로 전해진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지난 17일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루지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총남지역 교사 4명이 실종된 가운데 같은 날 학생들을 인솔해 트레킹에 오던 전남지역 교사들이 찍은 현지 사진. /뉴스1

교육부 네팔 교사 실종사고 상황점검단 구성

구조 위해 외교부 등과 공조
조기귀국 교사 심리치료 지원

교육부가 총남 지역 교사 4명이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사고에 관해 상황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상황점검단은 정종철 교육안전정보국장이 단장을 맡았으며, 학교안전총괄과장, 교원정책과장, 교원양성연수과장, 교육국제화담당관, 홍보담당관

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실종 교사 전원이 최대한 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외교부 등과도 공조할 방침이다. 또 실종 교사 가족과 조기 귀국한 교사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치료·상담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총남교육청 사고상황본부를 방문해 합동점검회의를 가졌으며, 네팔 현지 수색과 구조지원을 위한 총남교육청 후발대도 출국했다. /한용수 기자

삼육대에 ‘美 약대 예과과정’ 생긴다

로마린다대, 美의 대학에 첫 프리팹 조건 충족시 로마린다대 지원 가능 우선입학제도, 교환학생도 운영키로



론 카터 로마린다대 부총장(왼쪽부터), 양재욱 삼육대 약학과 교수, 마이클 호그 로마린다대 약학대학장 /삼육대학교

삼육대 약학대학에 미국 로마린다대 약대 예과에 해당하는 프리팹(Pre-Pharmacy) 과정이 생긴다. 미국 약대 본과 진학을 위한 프리팹이 미국 외국에 개설되는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삼육대가 최초다.

삼육대는 최근 로마린다대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약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학 학부에서 2~4년간 프리팹 과정을 이수한 후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성적으로 본과에 지원해야 한다. 4년간의 본과 과정을 수료하면 전문약학박사학위인 ‘팜디’를 수여받고, 이 학위로 미국 약사면허시험(NAPLEX)과 각 주별로 실시하는 법규시험(MPJE, 캘리포니아는 CPJE)을 통과해야 약사자격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한국 학생이 미국 약대에 진학하거나 약사가 되려면, 한국에서 4년의 학부 과정을 마치고도 미국 대학에서 프리팹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삼육대에 로마린다대 약대 프리팹 과정이 생기면서, 삼육대 졸업생들은 기초과학과목과 영어작문을 비롯한 필수과목, 어학성적 등 정해진 요구조건만 갖추면 별도의 프리팹을 거치지 않고 이 대학 본과에

바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은 삼육대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1년에 최대 15명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양교는 삼육대 약대 졸업생이 로마린다대 약대 본과에 진학할 수 있는 우선입학제도(preferred admission) 협약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삼육대 약대 졸업생은 로마린다대 약대 본과(Pharm. D) 4년 과정을 3년으로 압축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삼육대 약학과 양재욱 교수는 “미국 약대가 해외(미국 외) 대학에 프리팹 과정을 개설하고 학점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 약학교육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며 “이는 양교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삼육대 약학교육의 우수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양교는 자매대학으로서 수십 년간 학술교류 및 교수·학생교류 등 협력관계를 이어왔으며, 삼육대 졸업생 다수가 로마린다대 교수와 유학생으로

진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삼육대와 로마린다대는 아울러 양교 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로마린다대 약대 학생들은 삼육대와 삼육서울병원 등에서 임상실습을 실시한다.

로마린다대 론 카터 부총장은 “국가 간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기회를 찾고 있다”면서 “삼육대 약대와 협력해 양교 학생들이 약학 분야에서 글로벌한 시각을 형성하고,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마린다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에 소재한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이다.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등 8개 학부에 121개 학위 과정을 두고 있는 명문 사립대학. 산하에 남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병원인 로마린다대학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

교육서비스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1위 대교

메가스터디, 웅진씽크빅 順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통해 교육서비스 상장기업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한 결과 대교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메가스터디교육, 웅진씽크빅이 빅3로 나타났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 달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약 한 달간, 국내 교육서비스 상장기업에 대한 브랜드 빅데이터 2484만여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서비스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시장지수, 사회공헌 지수로 분석했다. 또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측정과 채널 평가도 포함됐다.

1위 대교는 소통지수, 시장지수, 커뮤니티지수가 특히 높은 가운데, 전월 대비 브랜드 평판 지수가 51.40% 대폭 상승했다. 2위와 3위는 각각 시장지수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 공학교육센터 공학교육인증 창의설계대회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공학교육센터는 지난달 27일 군자관 집현전에서 제8회 공학교육인증 교내 창의설계 경진대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과대학, 전자정보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등 공학 인증 운영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제품개발 능력을 증진하고 설계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대회는 총 17팀이 참가해 실생활에서 접하는 공학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열띤 경연을 선보였다. 교수진과 학생 50여 명이 참가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졌다. 일반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도 진행했다.

대상은 김대영(기계공학과·15), 홍정택(기계공학과·15), 최기용(기계공학과·15), 김도윤(기계공학과·15), 이상진(기계공학과·15), 박민제(기계공학과·17) 학생으로 구성된 ‘먼지가 되어’ 팀이 차지했다. ‘먼지가 되어’ 팀은 공공장소 공기 정화를 위한 저비용 미세먼지 집진기에 대한 내용의 발표를 했으며, 환경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대영 학생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대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고생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중앙대, 1000여명 유학생 총집합 ‘K팝경연’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21일 오후 2시 서울캠퍼스 체육관(305관)에서 ‘제4회 K-Festival’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중앙대 언어교육원이 주최하는 연례행사로, 한국어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12개국 10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한다. K-POP 콘텐츠를 통해 유학생들과 우리나라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민속놀이 체험 ▲한복체험 ▲K-POP 경연 ▲중앙대 응원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K-POP 경연대회 예선전에는 총 22개팀이 참가했으며, 프랑스, 중국, 베트남, 칠레, 카자흐스탄 등 8개팀이 선발됐다. 선발된 팀들은 본선 경연대회에서 한국가요, 댄스, 민속무용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중앙대는 21일 2시 서울캠퍼스 체육관(305관)에서 제4회 K-Festival을 개최한다. /중앙대